

신안군, '개체굴 시범양식' 중간점검 실시... 산업화 의견 나눠

개체굴 성장상태 · 테이블형 양식시설물 확인 전업어가 · 귀어자 개체굴 양식기술 교육 전수

신안군은 지난 22일 자은면 백산리 개체굴 시범양식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원, 김길동 신안수협조합장, 김충남 전남도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장, 김상윤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장, 남상윤 신안관광협회의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체굴 시범양식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중간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

에 입식한 개체굴의 성장상태(때각 크기 및 모양, 비만도 등)와 테이블형 양식시설물을 면밀히 확인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향후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한 양식어업인 지원과 인적자원 육성, 국내외 유통 및 판매 그리고 관광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폭 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신안군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어업

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개체굴' 양식품종의 도입과 신안수산연구소를 설립하여 전국 최초로 개체굴 종자 500만미를 생산하여 자은, 비금, 도초, 하의, 신의 등 총 9개 지역에 개체굴 시범양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박우량 신안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수산'을 위해 2019년 신안군 "제1기 개체굴 양식학교"를 운영하여 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프랑스 개체굴 양식전문학교에 어업인 5명을 입학시켜 4주간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개체굴 양식 전문인력을 육



성하여 현재 신안군 개체굴 시범양식장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은 개체굴 종자생산, 중간육성, 시범양식, 가공처리 등 기술개발을 통해 개체굴 안전양식을 확립하여 청년 및 전업어가, 귀어자에게 개체굴

양식기술 교육을 전수하는 등 양식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갯벌에서 자란 개체굴은 2021년도부터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생산·소비될 것으로 보이며, 맛과 향이 뛰어나고 유통기간이 길어 가격 경쟁

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개체굴 전용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신선한 개체굴 생산을 통해 국내 유통 및 아시아권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보고회

101개 세부지표 분석 추진실적 파악 등 실적거양 방안 논의

영암군은 지난 9월 21일 202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실적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보고회는 101개 세부지표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대책, 이후 추진계획

등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군은 전남도내 상위그룹을 목표로 하여 3대 추진전략인 ▲정량지표 실적 향상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부서별 책임감 제고 등을 중점 추진사

향으로 설정하고 평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이 있어 이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파악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책을 보고받았다. 박종필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고 점검하는 제도로, 영암군의 행정력을 평가받고 그 성과를 군민

에게 보이는 것인 만큼 남은 4분기 지표담당자들을 독려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 등 행정역량에 대하여 116개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영광군, 28일까지 굴비 · 돔류 · 새우 · 갈치 등 대상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 영광군에서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하였다.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 확대

개방공공자원 수, 기존 33건서 80여건으로 늘려



함평군은 주민편의향상과 공공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누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3일 군은 기존 33건이었던 개방공공자원 수를 이달부터 80여 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유누리 서비스 도입 이후 군 공공자원에 대한 사용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공공자원

이용확대와 정확한 이용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에 개방공공자원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유누리는 공공기관(중앙·지자체)이 보유한 사무용 시설과 물품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다. 행정안전부가 조달청과 협업체에 올해 3월 처음 개통했다. 군은 지난 6월 군립도서관, 군립미술관, 읍면사무소 회의실 등의 공

공자원을 공유누리에 최초 등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정영성 함평군 미래전략실장은 "공유누리를 통해 이용가능한 시설과 운영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누구나 쉽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공공자원을 공유누리에 지속 확대 등록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추석연휴 비상진료대책

목포시가 귀성객과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관내 129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당직의료기관을 구분·지정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약국 116개소도 지역별 당직 약국을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내 6개소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유사 시 진료 및 응급처치에 즉각 임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또한 목포기독병원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6개소와 보건소는 코

로나19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유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안내와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보건소에 상환실을 설치·운영한다. 목포=박정수 기자

전 국민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무안군, 1인당 10만원씩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이 해당되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총 84,387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무안연꽃축제와 청년축제 등 행사성 경비

22억원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여비 등 공공분야 경상경비 28억원 절감 등 강도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약 8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지정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주요 방역수칙도 적극 홍보하여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안=이성기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